

## 중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모델

윤 순녕 (한국산업간호협회 장)

### New Paradigm!

**I. Thoma S. Kuhn**은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1962)”에서 과학은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온대로 체계적이며 합리적 방식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과학은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파라다임전단계로 미성숙 과학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정상과학 단계이다. 정상과학 단계는 연구된 세계(the world being)의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어떻게 연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유된 형이상학적이며 방법론적 가정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rational puzzle solving)단계이다. 이를 일컬어 Paradigm이라 한다. 즉, 정상과학이 공유하는 일반이론을 말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정상과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실제적인 문제들과 돌연변이(anomalies)의 수가 증가하면 부가적(ad hoc)설명의 증가를 요하게 된다. 나아가서는 파라다임의 기본적 과정의 밀바탕부터 또는 그럴싸한 것부터 파고 들어가게 되고 젊은 학자들은 기존 파라다임의 가정 밖에서 문제해결을 탐색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를 혁명적 단계(revolutionary science)라고 한다.

**II. 우리나라 산업관리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대행기관(1982, 1990)에 의한 관리이다. 그리고 실현성이나 산업보건공급측면에서 유용성이 낮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조법(이하 기특법이라 함, 1993)에 의한 공동채용 보건관리이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을 중소기업으로 볼 때, 법적 보건관리를 하고 있는 8583개 사업장 중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의한 사업장보건관리는 6,430개소(74.9%)이며 기특법에 의해 300인 이상의 중대규모 사업장도 보건관리대행이 가능하므로 1,249개 중 70개소(5.6%, 1999)에 이르고 있다(노동부자료, 2000.5)

여기에 50인 미만 국고대행 7,855개소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78개의 대행기관 수로 나누어 보면 한 개 사업장 당 197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III. 금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의 금융, 보험, 건설업의 보건관리와 50인 의무화되고 5인 미만 산재보험 적용과 앞으로 사업주의 보건관리 의무화정책에 따라 선임보건관리자의 배치보다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위탁 사업장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근로자 건강문제의 새로운 양상- 소규모 사업장의 증가하는 재해율, 새로

은 직업성 질환의 출현, 뇌 심혈관계질환의 증가 등-과 경제 사회적, 정책적 지향 (저 비용 고 효율의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발)을 고려 할 때이다.

**IV. 이러한 변화에 기존의 산업보건관리 패러다임으로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 중소기업사업장 보건관리 수요 급증에 대한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의한 보건관리가 유일한 공급방식인지에 대한 회의 또는 전면부정을 산업보건학계가 함께 할 때가 아닌가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산업보건전문인의 의식 전환, New Paradigm으로 관심을 돌려보자.

**V. 본 협회는 소규모사업장보건관리 사업 명으로 1999년 "서울특별시 주체 민간단체 공공근로사업추진사업"의 제2단계(7.14-9.30)제4단계(10.11-12.30)에 참여하였다** 이어서 2000년 1단계(2.7-4.28), 2단계(5.8-6.30)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미 취업간호사의 취업기반조성에 두고 산업보건관리의 소외계층인 소규모사업장 보건실태와 건강요구를 조사하여 이에 기초한 보건사업을 제공하는데 있다. 작년도 2,4단계의 사업에서는 각 단계별로 40명씩의 간호사를 채용하여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양평동과 구로구 공단지역의 1,507개 사업장에 있는 총 근로자의 수는 4,6218명 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89%를 차지 하였다. 1999년도 4단계에서는 2단계보다 사업장보건관리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식이 좋아져서 사업장의 협조율과 상담건 수, 간이검진의 참여가 증가하였고 중도 탈락율이 감소하였다. 2단계에는 기초조사에 중점을 두었으나 4단계에서는 기초조사에 근거하여 사업장과 협의 하에 귀마개와 방진마스크를 무료로 공급하면서 난청관리, 진폐 예방 등의 직업성질환예방사업과 작업환경측정을 희망사업장에 실시하였다. 작업 요통예방, 피로예방을 위한 발판 보급, 금연 절주지도, 유방암 자가검진 등의 건강증진사업과 뇌 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양식의 개선지도 등의 근로자의 생활지도, 고혈압, 당뇨병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의학적 처방에 따른 지속적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요구에 맞는 보건교육자료를 21종을 자체 제작, 보급하여 사업주나 근로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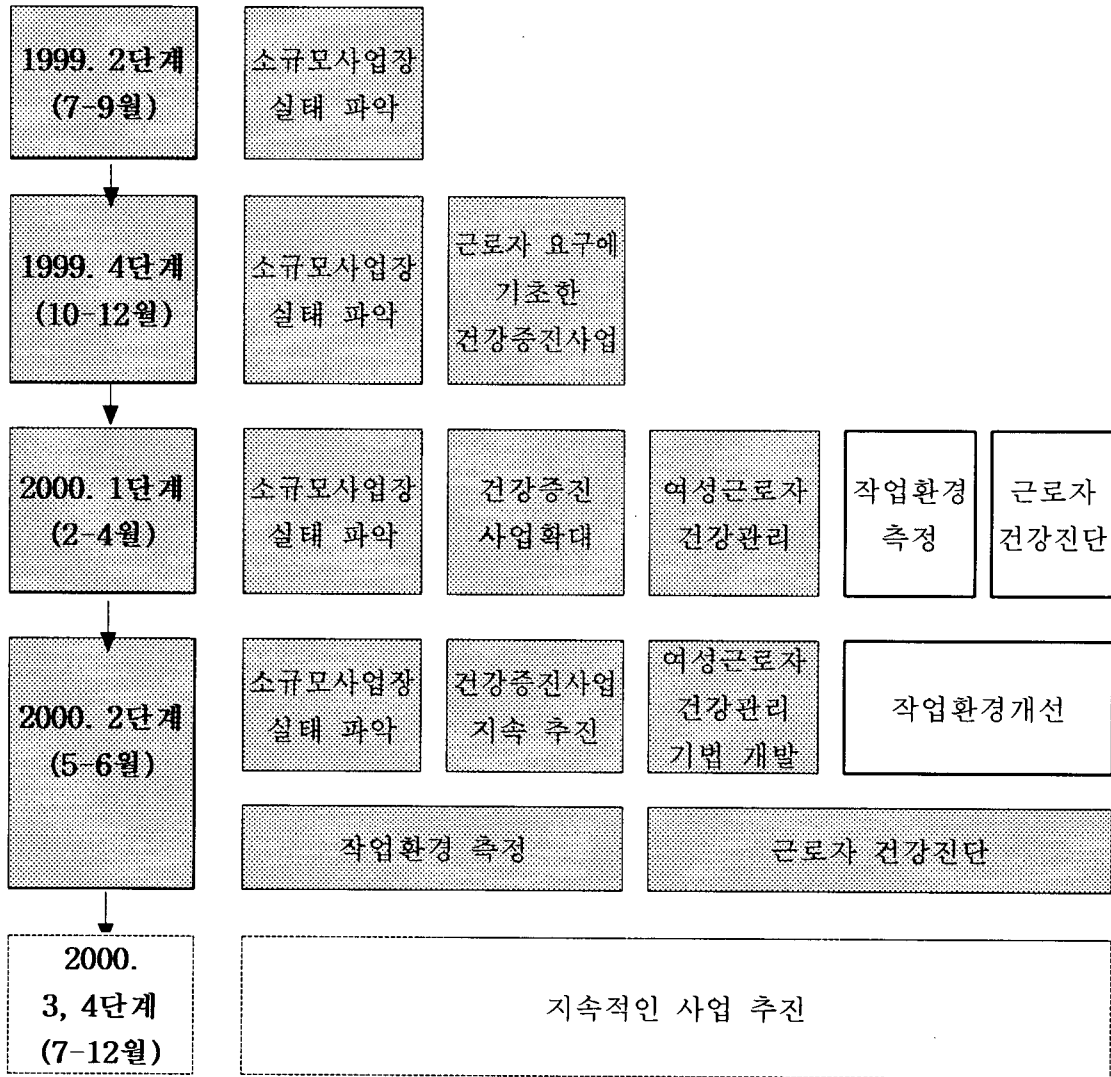
2000년도 1, 2단계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한림대 산업의학센터의 협조로 이동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작업환경측정은 희망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고대환경의학연구소에서 측정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선사항을 회신하였다. 이 사업들에 대한 효과검증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검증 (Evidence-based)한 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방안을 개발함으로써 산업보건관리 소외계층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결정에 하나의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사업을 토대로 구축된 모델은 그림 1, 과 2와 같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토의 된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기업 사업장 보건관리의 실행모델로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사업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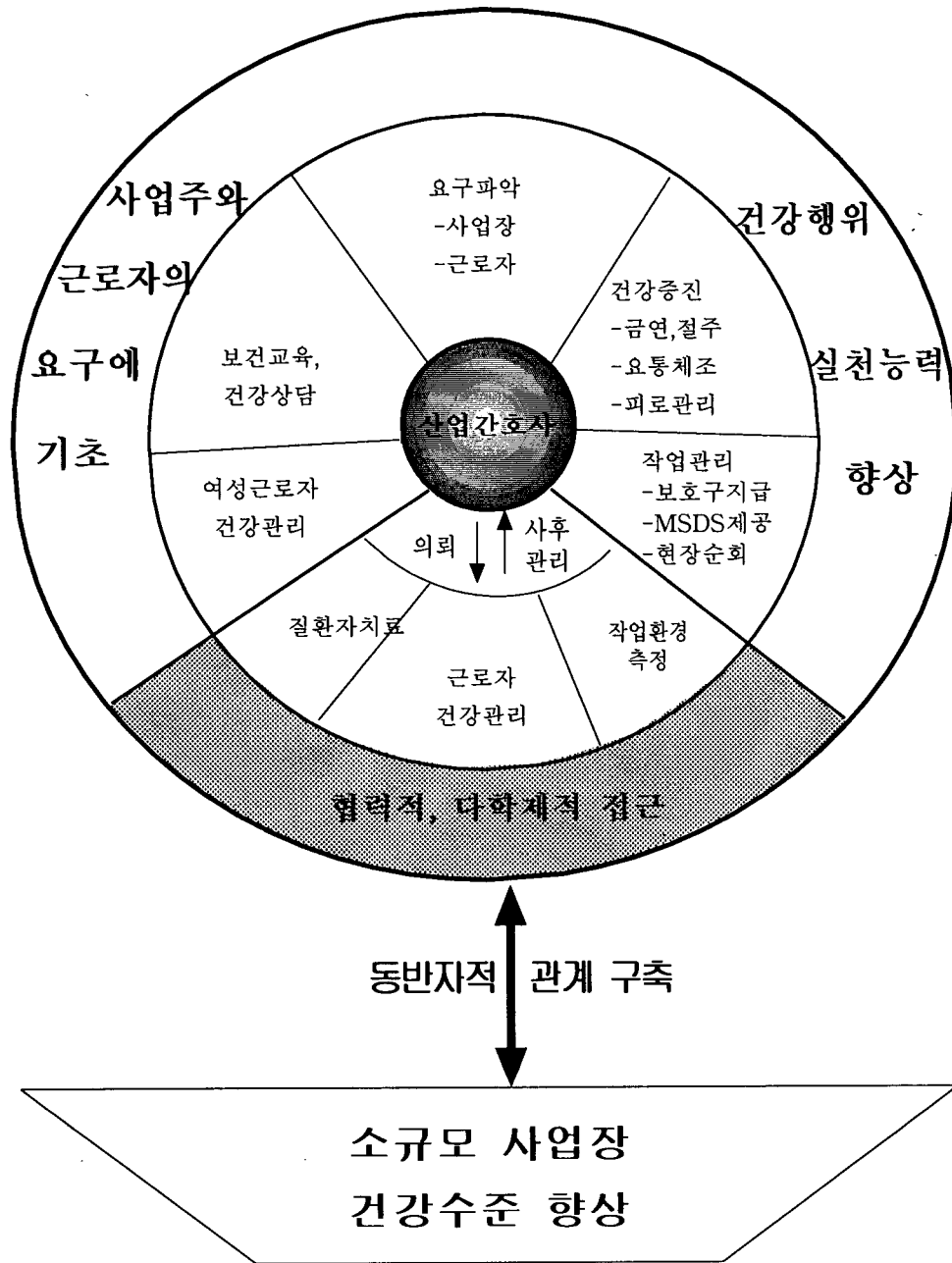
추진 사업의 특성



모형개발 정책제안

소규모 사업장  
건강수준 향상

<그림1> 시기별 사업추진내용



<그림2>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사업모형